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48>
(修習止觀坐禪法要)

제6장 정수행(正修行) ⑫

언어는 분별심의 표현일 뿐

云何語中修觀 應作是念 由心覺觀鼓動氣息 衝於咽喉唇舌齒齶 故出音聲語言 因此語故 則有一切善惡等法 故名爲語 反觀語心 不見相貌 當知語者 及語中一切法畢竟空寂 是名修觀 如上六義修習止觀 隨時相應用之 一皆由前五番修止觀意 如上所說

어떻게 말 하는 가운데서 관을 닦아야만 하는가.

마땅히 이와 같이 생각해야만 한다.

죽은 사람은 입이 있는데도 무엇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것일까. 내가 말하는 것은 분별심이 호흡의 기운으로 윤희하여 언어 음성이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언어는 안에서 호흡의 기운이 움직여 목과 입술과 혀와 잇몸과 종동하기 때문에 음성이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없으면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알아야 할 것은 입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해서 말이 있다는 점이다. 만일 단 순히 입만으로 말을 할 수 있다면 병어리도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가.

이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말은 입만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음에서 분별심이 움직여 입으로 말을 할 때에 말을 하는 마음을 돌이켜 관찰해보면 안으로 육근, 밖으로 육진, 중간에 육식 등 그 어디에도 실체라고는 없다.

따라서 말을 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즉공 즉가 즉중일 뿐만 아니라, 말 가운데 일체 선악 등 언어도 역시 즉공 즉가 즉중이어서 필경 공적하다. 이와 같은 이치를 알면 말하는 가운데 관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옛날 제2조(第二祖) 헤가(慧可)대사는 초조인 달마대사 처소에 이르러 칼로 팔을 끊으면서 신심을 보이고 법을 구하였는데,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면서 달마대사에게 말하였다.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달마대사는 말하였다.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너를 편안하게 해주리라.”

헤가대사는 답변하기를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자 달마대사는 말하였다.

“나는 너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일을 끝냈다.”

이 경우가 바로 필경 공적한 지관의 의미와 서로 부합한다.

次六根門中修止觀者 一眼見色時修止者 隨見色時 如水中月 無有定實

두 번째로 육근이 육진을 마주하는 측면에서 수행하는 지관에 대해 밝히겠다.

최초로 발심한 사람이 지관을 수습하여 지관과 서로 호응하여 그 이익을 얻기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지관은 변화와 서로 호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주리라.”

헤가대사는 답변하기를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자 달마대사는 말하였다.

“나는 너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일을 끝냈다.”

이 경우가 바로 필경 공적한 지관의 의미와 서로 부합한다.

次六根門中修止觀者 一眼見色時修止者 隨見色時 如水中月 無有定實

두 번째로 육근이 육진을 마주하는 측면에서 수행하는 지관에 대해 밝히겠다.

최초로 발심한 사람이 지관을 수습하여 지관과 서로 호응하여 그 이익을 얻기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지관은 변화와 서로 호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는 지관까지를 말한다.

육근 가운데 첫 번째 안근이 색경을 바라볼 때에 수습하는 지관은 눈이 안근에 보이는 갖가지 색상이 많기는 하지만 그것을 요약하면 세 종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는 현색(顯色)인데, 현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뜻이고 색은 형질의 장애가 있다는 뜻이다. 현색은 청황적백(靑黃赤白)과 광명 그림자 어두움 연기 구름 티끌 안개 허공 등을 말하는데, 분명히 환하게 드러나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 하나는 형색(形色)인데, 형은 형상의 의미이다. 장단방원(長短方圓)과 거칠고 미세하고 높고 낮은 것과 울바르고 울바르지 못한 것 등이 형색에 속한다.

다음으로 표색(表色)인데, 표는 표현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행주좌와(行住坐臥)와 취사

아 육안으로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지만 이 비실신 의근과 마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주함이 있는 색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볼 수도 없고 마주할도 없는 색인데, 이는 무표색(無表色)에 해당된다. 우리의 제육의식이 과거에 보았던 경계를 인식할 때에 그것을 낙사영자(落謝影字)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의식 속에 그림자로서 떠오른 색이다. 대체로 전오진(前五塵)은 의식으로 명료하게 분별하기는 하지만 단지 의식 속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내재한 색을 볼 수 없으며 역시 겉으로 드러나 상대적으로 마주할도 없다. 따라서 표현이 없는 색이라고 하여 무표색이라고 말한다.

지를 수행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서술한 갖가지 색을 논하는 대로 따라 보면서 이 모든 것은 허공 꽃이고 물속에서 어린 닭과 같이 있다 해도 실제 있지 않고, 있지 않다 해도 실제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단정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명료하게 알아야만 한다.

죽은 사람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분별심·언어의 실체는 당체가 공적

따라서 반드시 마음의 모든 번뇌를 놓아버리고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내 몸에 대한 집착을 잊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그런 다음에 지관이라는 두 가지 법은 ‘집착을 타파하는 날카로운 도끼와 같고, 분별심을 없애는 강한 칼과 같으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사다리이며, 번뇌를 제거하는 오묘한 약’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만일 하루 종일 지관을 잊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불도를 이루지 못하고 생사를 끝내지 못할까봐 걱정하겠는가. 그 때문에 육근이 한 경계를 마주한 가운데 수습하는 지관을 가르쳐 생각 생각에 지관을 떠나지 않고 간단없이 공부하는 법을 환하게 드러냈다.

육근이 육진을 상대하여 지관 수행한다는 것은 안근이 색진을 볼 때 수행하는 지관으로 부터 제육의근이 법진을 마주하면서 수습하

굴신이 여기에 해당된다. 표색은 실재하는 물질이 아니라 행동하는 일이라는 하지만 그 행동의 표현이 있어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때문에 표색이라고 말한다.

또 ‘아비담론’에서는 세 종류의 동일하지 않은 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볼 수 있고 마주할 수 있는 색이다. 일체 색신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세간의 색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안근과 상대적으로 마주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마주함이 있는 색인데, 안이비설신 등 오근과 색향미촉 등 사진이 여기에 해당된다. 안식은 볼 수는 없지만 색을 마주할 수 있고, 이식은 볼 수 없지만 소리는 마주할 수 있고, 신식은 볼 수는 없지만 촉을 마주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청정색으로서 승의근(勝義根)에 해당된다. 그리고 색향미촉 등 사진은 너무도 작

若見順情之色 不起貪愛 若見違情之色 不起瞋惱 若見非違非順之色 不起無明及諸亂想 是名修止

만일 내 감정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색을 보면 마땅히 허깨비와 같고, 변화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것을 알고 탐애심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내 감정을 위배하는 증오스런 색을 본다 할지라도 진심과 고뇌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또 내 감정에 위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색을 본다 할지라도 무명과 혼란한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를 두고 지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상에서 밝혔던 현색, 형색, 표색 등 갖가지 색 가운데 낱알이 모두가 감정에 순종하는 색, 위배하는 색, 위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색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수행자가 스스로 자세히 살펴야만 한다는 점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십이처(十二處)

‘십이처(十二處)’는 일체의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합니다. 즉 인식주관인 육근(六根)과 인식대상인 육경(六境)을 말하며, 이 두 가지가 접촉하여 모든 정신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육근은 안처(眼處) 이처(耳處) 비처(鼻處) 설처(舌處) 신처(身處) 의처(意處) 등 여섯 개의 감각기관을 말하는데, 이를 ‘내육처(內六處)’라고 합니다.

육근에 상응하는 육경은 색처(色處) 성처(聲處) 향처(香處) 미처(味處) 촉처(觸處) 법처(法處)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육진경계에 해당됩니다. 이를 두고 ‘외육처(外六處)’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내육근(內六根)과 외육경(外六境)을 합해서 ‘십이처’라고 합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십이처 가운데서 안이비설신 등 오색근(五色根)과 색성향미촉 등 오색경(五色境)은 오온 가운데서 색온에 포함되는데, 이상의 십처(十處) 색법을 ‘십유대색(十有對色)’이라고 합니다. ‘유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주관, 즉 육근과 상대적으로 마주 대하는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내육처 가운데서 의처(意處)는 식온에 포함되며, 외육처에 해당하는 법처 가운데서 그 중 한 부분은 수온, 상온, 행온에 포함됩니다.

또 법처 가운데 한 부분으로 포함되는 육공무위(六種無爲), 즉 여섯 종류로 나뉘는 출세간 무위법인 허공무위(虛空無爲), 태백무위(擇滅無爲), 비택멸무위(非擇滅無爲), 부동무위(不動無爲), 수상멸무위(受想滅無爲), 진여무위(眞如無爲)는 세간유무생법법인 오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무위법은 세간 오온법처럼 여러 개의 요소가 인연에 의해서 한 무더기로 집합하는 의미, 즉 생멸로 이합집산하는 모습이 없는 불생불멸의 절대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이처- 육근·육경

- (1) 안처(色處)..... (7) 색처(色處)
- (2) 이처(耳處)..... (8) 성처(聲處)
- (3) 비처(鼻處)..... (9) 향처(香處)
- (4) 설처(舌處)..... (10) 미처(味處)
- (5) 신처(身處)..... (11) 촉처(觸處)
- (6) 의처(意處)..... (12) 법처(法處)

■정리=張如舟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전생·빙의

인간 잠재의식 직접 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자기 개선은 물론 타인도 도울 수 있다.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잠재의식속에 숨겨진 심리적 근원을 밝혀 인간을 변화시키는 최면의 위력"

빙의치유

▶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영가와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인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재에 얽힌 인과관계와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지혜로운 삶을 찾게 한다.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KBS 무한시대-국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부부슬루션 출연

미국 최면전문대학 객원교수
국제 임상최면 전문가(ICHT)
심리상담 전문가,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한국최면지도사 협회장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원

대학교평생교육원 최면학 강의 및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의 실체, 최면요법 등

안면자라 및 공개특강
비디오테이프
보내드립니다.
테이프 발송비 10,000원

현재
접수중

미국최면전문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한국최면과학원 대표전화 : 1544~2741 대전 042)222-0737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대서동 서대전역7번출구 청운빌딩2층

내 몸내가 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안내

1. 한국전통따주기(多注氣) 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를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옵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낮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름, 비경, 백반, 목, 어깨, 가슴 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제산),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神氣, 神氣, 神氣, 神氣,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저지방맥 등)
-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마. 비정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낮게 할 수 있습니다.
-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알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자신 건강관리/ 따주기 사회봉사/ 건강 북 짓기 / 생활속 비상 따주기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반 수강료 이론, 실습 모두 학습)

- 가. 1일차 (토요일 09:00 ~ 22:00)
 - ◆ 우주의 기운
 -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 5형으로 본 인체
- 나. 2일차 (일요일 09:00 ~ 13:00)
 - ◆ 수치의 비밀
 -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 작명 비법
 -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 병 예방 비법
 - ◆ 실습
- 다. 3일차 (수요일 09:00 ~ 13:00)
 - ◆ 구합 비법
 - ◆ 수상 및 관상 보강
 -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 (선착순 12명)
다. 장소 : 충남청양교육장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